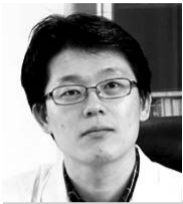


건강칼럼

새학기 증후군이란?

**자** 녀를 둔 부모라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이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며 투정을 부린다면 '새학기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새학기 증후군이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실과 학생들 선생님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정신적·육체적인 증상이다. 이는 낯선 환경 및 단체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다.



김이곤

구암한의원 원장

연스러운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아 누적되면 보통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우울감 같은 중증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부모와 애착 형성 부족, 낯선 환경, 학업 스트레스 등이 원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단체생활과 대인관계의 시작은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환경 변화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안정적인 아이는 대체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어려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는 교사나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수업 시간과 학업량 입시에 대한 부담감 및 학교 폭력 또한 새학기 증후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대화·칭찬·격려가 해결책

매일 아침 등교 때마다 부모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 때를 쓸 경우 무작정 혼내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부모로부터 애단을 맞은 아이는 불안과 우울 분노감이 더 커진다. 대신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가 항상 옆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해 자주 얘기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새학기 증후군을 없앨 수 있다.

독자제언

과도한 주취행동, 경찰력 낭비 부른다

봄철 날씨가 풀려감에 따라 야외활동이 늘어가면서 하루 평균 112신고 건수 중 주취자 관련 신고택시비 시비 영업방해, 지구대·파출소 내 소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취가 보호업무도 물론 경찰의 업무 중 일부이지만 술에 잔뜩 취해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주취자들을 상대하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마련이다.

요즘 같은 날씨에 주말의 경우에는 112신고의 절반 가까이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다.

특히 심야시간에는 실제로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할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보행로에 드러눕거나 심지어는 차도에 들어가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 경찰은 업무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술에 취

한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 또한 많다.

문제는 경찰관공서 등 주취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발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술에 취해 부리는 행위가 술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으로 인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감에 따라 국민들의 시각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실수'라는 과거 관용적 태도에서 무관용적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처벌만으로는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과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술에 취하여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오현규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기자수첩

공무원의 두 얼굴

겨우내 잠들었던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펴며 소생하는 봄을 맞고 있다. 농촌도 봄철을 맞아 농사일에 주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공무원들 또한 담당 부서마다 각종 민원사항 처리 등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두 얼굴을 가진 공무원들의 일탈과 민원업무 처리 능력과 외면행위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관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에 민원사항을 시정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품소 실천하는 공무원도 있어 두 얼굴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황정수 군수는 '일하는 공무원상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에게 이런 말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황 군수는 무주군 발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외면하며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 군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정확, 친절하게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구에 경 읽기모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불법성 민원을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민원사항 해결에 매진해야 함에도 '너는 떠날어라 나는 모른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 건설교통과 농촌개발과는 주



전문선

지방부 무주주재

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충실히 이행하며 행정 친절서비스를 품소 실천하며 무주군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군 발전이라는 것이 획기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 어떤 물작인 것을 굳이 유치해야 발전이라고 하지만 민원사항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군 발전의 첫 단 계가 아닌가 묻고 싶다.

우리는 흔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쌓아 놓은 공든 탑도 무너진다고 한다. 이런 순리는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어 공직자들은 되새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민원사항을 외면하며 무위도식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해야 한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야누스는 세간에 자탄의 대상이다. 무주 공무원들은 이런 야누스 보다 열사봉공의 정신으로 임하는 공무원상을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사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순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 통계청의 지난 2월 동향보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는 청년 실업이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전북도는 진실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 전북 지역에 미래는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담부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 지금 한 국사회는 청년 일자리 부족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다.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이 유행된지도 오래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이다. 그런데 아직도 청년들의 그 같은 자조와 비아냥은 수그러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별리 현상이 심각한 까닭이다. '흙수저'는 부도 세습되고 일자리도 세습되는 판이니 말이다.

도내 젊은이들 중에는 상경을 했어도 일자리를 못구해 방황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보도이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흠대를 당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어서 안 된다. 전북도는 역지사지 하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한 채 자신이 실업자로 있음을 자각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특별한 노력으로 취업률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들 눈이 번쩍 뜨일 것이다. 전북도가 청년 취업에 신경을 쓰고 있다지만 매번 성과가 미미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이 꾸준했으면 한다. 다시 당 부하고 또 당부하거나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통 이상의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속도내야

전주시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공금하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말이 나온지 십수년을 넘기고 있는데 아직도 갈길이 먼지 감 무소속이다. 얼마 전에 구도심사를 철거해 무언가 보여줄 듯이 하다가는 오래도록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래가지고는 구도심 활성화는 백년 하정이다. 시민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했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약속과 관련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약속을 했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게 역력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중요한 현안이다. 인구가 도시 변두리의 아파트 단지로 집중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구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놓고 오래도록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에 박력

을 보여야 한다. 사업을 벌이지 세월이 좀 지났으면 뭔가 일을 벌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호기있게 말해놓고 변화의 기미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가장 인간적인 플랜 50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때도 새롭다는 느낌이 없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도 그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공간 재창조'에 대한 언급이 그러했다.

도시마다 거주 인구 분포의 변화가 큰 요즘이다. 인구가 도시 근교의 아파트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권도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심지의 어느 곳은 폐가 지역이 돼버렸다. 전주의 경우 서노송동 일부 지역이 특히 그렇다. 거듭 강조해 주문하거니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든 도시 재생사업이든 구체적 추진이 있어야겠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9-6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